

클래식 명곡 산책 - - 합창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공연 하나쯤은 볼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계의 수많은 콘서트홀에서는 합창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은 헨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아닐까 싶네요. 이외에도 성탄과 연말을 기념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올해 12월에 우리 방송기술인들도 합창곡을 들으러 공연장에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예수는 나의 기쁨 Jesus bleibet meine Freude (1723)

칸타타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명, BWV 147>(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은 바흐가 라이프치히에서 칸토르로 활동하던 시기인 1723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은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그의 친척인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여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을 위한 작품 이죠. 요즘에는 그 축일을 5월 31일에 지키지만 13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약 700년 동안 7월 2일에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그림 1. 합창 / 출처: amazon.com



그림 2.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 출처 : nybooks.com



그림 3. 조아키노 로시니 / 출처 : pacificsymphony.blog



그림 4. 펠릭스 멘델스존 / 출처 : classcalfm.ca

말과 행동과 생명>도 1723년 7월 2일에 초연되었죠. 모두 열 곡으로 이루어진 이 칸타타 중에서 마지막 곡인 '예수는 나의 기쁨'은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합창곡입니다. 물이 넘실대는 듯한 반주에 그 위에서 잔잔히 노 저어 가는 듯한 우아한 선율이 인상적이죠.

♣ 조아키노 로시니 Gioacchino Rossini (1792~1868)

믿음, 소망, 사랑 La Fede, la Speranza, la Carità (1844)

이탈리아의 낭만 음악의 꽃을 오페라에서 찾는다면 그 공은 로시니의 선구적인 작업에도 마땅히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고전 시대를 마감하고 낭만 시대로 접어들 무렵 <세비아의 이발사>를 비롯한 39개의 오페라를 작곡하며 중주곡으로서의 이탈리아 오페라 문화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시니의 오페라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다 보니 다수의 다른 성악 작품이나 기악곡 등은 지금까지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로시니 자신도 오페라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도 있죠. 1832년 작품(1841년 수정)인 <슬픈 성모>(Stabat Mater)나 1804년 작품인 <현을 위한 6개의 소나타>(Sei sonate a quattro)가 그 존재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연주되는 로시니의 숨은 보석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곡은 1844년에 작곡된 여성 합창을 위한 <세 개의 종교 합창곡>(Trois choeurs religieux)에 포함된 작품으로, 간단하면서도 풍부한 표정을 지닌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득합니다. 로시니가 만약 오페라가 아닌 가곡을 주로 작곡했다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슈베르트와 견줄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수작입니다.

♣ 펠릭스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

세 개의 모테트 Drei Motteten, op. 39 (1830)

눈을 들어 산을 보라 Hebe deine Augen auf (1846)

부유한 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멘델스존은 9살에 피아노 독주회를 갖고 10살 때 베를린 징아카데미 단원이 되었으며, 11살 때 작품이 공개된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등 어렸을 때부터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음악 신동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작곡가로서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곡가 중의 한 명일 것입니다. 멘델스존은 이외에도 수많은 가곡을 남겼으며, 후기에 주로 작곡된 합창곡은 멘델스존의 성숙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830년 작품인 여성 합창을 위한 <세 개의 모테트>는 초기의 합창곡으로, 일종의 디딤돌과 같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경건한 코랄 풍의 '주여 임하소서'(Veni domine)와 대위법적 긴장감이 돋보이는 '주를 찬양하라'(Laude pueri), 평안으로 가득한 '일어서라, 착한 목동이어'(Surrexit pastor bonus)로 구성되어 특징적인 성격을 가진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죠. 전체를 마무리하는 대위적인 '할렐루야'는 옛 바로크 성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멘델스존은 성인이 된 후 바흐의 <마태 수난곡> 등을 연주하여 당시 잊힌 바흐를 부활시켰으며, 라인 남부와 버밍엄 등에서 음악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이프치히에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열어 음악 인생의 전성기를 보냈죠.

바흐를 부활시킨 멘델스존답게 그의 음악에서 바흐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1836년 작품 <바울>(Paulus)과 1846년 작품 <엘리아>(Elias) 등의 대규모 오라토리오를 바흐의 재발견과 고전 음악의 계승자라는 멘델스존의 음악사적 위치를 대변해주는 기념비적인 작품들입니다.

<엘리아>에 속한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부제를 가진 시편 121편의 내용으로, 세 명의 천사가 광야의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아를 호위하며 부르는 삼중창입니다. 합창단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명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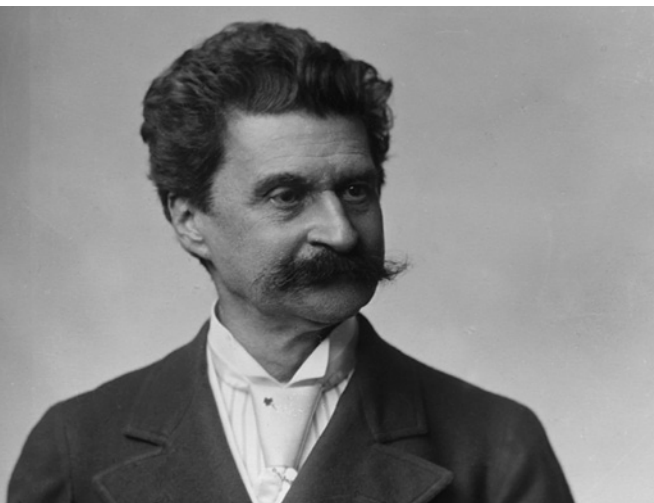


그림 5. 요한 슈트라우스 Jr. / 출처 : lacasadelahistoria.com

❖ 요한 슈트라우스 (아들) Johann Strauss Jr. (1825~1899)

트리치-트라치 폴카 Tritsch-Tratsch Polka, op. 214 (1858)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서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Waltz), op. 314 (1867)

요한 슈트라우스는 공정의 음악 감독이었던 그의 아버지의 반대로 상업 학교에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원으로 음악 공부를 했던 그는 19세에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크게 성공했죠. 오늘날 그는 ‘왈츠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왈츠뿐만 아니라 폴카, 갈롭 등 당시 빈에서 유행했던 여러 종류의 춤곡을 작곡했습니다. ‘폴란드 아가씨’라는 뜻의 ‘폴카’는 2박자의 빠른 보헤미아의 춤곡이며, 19세기 후반 빈에서는 갈롭 다음으로 빠른 춤곡으로 있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는 많은 폴카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폴카’라고만 표기되어있는 작품도 있지만 프랑스 폴카(Polka-française), 빠른 폴카(Polka-Schnell), 폴카 마주르카(Polka-Mazurka) 등의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트리치-트라치 폴카>는 슈트라우스가 왈츠 작곡가로서 명성을 키워가던 1858년도의 작품입니다. ‘트리치-트라치’라는 이름은 빈의 귀부인들이 수다를 떠는 모습을 표현한 말로, 이 의미처럼 매우 가볍고 빠르고 톡톡 튀는 리듬으로 끝까지 몰아가죠. 하지만 작곡가의 첫째 부인의 애완견인 푸들 이름도 ‘트리치-트라치’였기 때문에 그 애완견을 묘사한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의 요한 슈트라우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관현악을 위한 작품인데요, 1970년대 중반에 ‘노래하는 천사들’이라는 영화에서 빈 소년 합창단이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른 이후 소년 합창단들의 애창곡으로 자주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가장 유명한 왈츠 중 하나죠. 이 곡도 본래 관현악곡이지만, 1867년 카니발 무도회에서 빈 남성 합창단에 의해 처음으로 가사가 붙여졌습니다. 당시의 가사는 많은 카니발 무도회가 취소되었던 일들에 대해 풍자한 것으로, 매우 우스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빈 사람들이여, 즐거워하라! 오호! 왜일까?” 이것은 당시 상황에 매우 맞는 것이었지만, 그 카니발 이후에는 불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였던 프란츠 본 게르너트가 1889년에 그 가사를 다듬었는데, 감성적이고 화사하면서도 도나우강을 애국적으로 표현한 그의 새로운 가사는 오늘날에도 자주 불리고 있습니다.

❖ 안톤 브루크너 Anton Bruckner (1824~1896)

이새의 자손이 번성하여 Virga Jesse floruit (1885)

브루크너는 바그너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그의 음악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페라나 악극을 단 한 편도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1개의 교향곡을 대표작으로 남겨놓았고, 이외에도 세 개의 대규모 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모테트를 작곡했습니다. 특히 모테트들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오르간을 연상케 하는 풍부한 음향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죠. 1885년에 작곡된 <이새의 자손이 번성하여>는 ‘이새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의 자손의 한 처녀가 하나님과 인간을 생산하였으며, 하나님은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에서 임하시리라, 알렐루야라는 라틴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92마디 중 대부분은 ‘하나님은 평화를 회복시키시고’(pacem Deus reddidit)와 ‘알렐루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림 6. 안톤 브루크너 / 출처 : gustav-mahler.eu



그림 7. 칼 오르프 / 출처 : subbury.com

♣ 칼 오르프 Carl Orff (1895~1982)

오, 운명의 여신여 O Fortuna (1936)

춤의 노래 Tanzlied

칼 오르프는 여섯 편의 오페라를 비롯하여 여러 합창 및 성악 작품을 남겼지만, 42세 때 작곡한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 1936)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심지어 <카르미나 부라나>와 함께 '승리 삼부작'으로 불리는 <카롤리 카르미나>와 <아프로디테의 승리> 조차 등장 밑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죠. 본래 '카르미나 부라나'는 중세의 노래 모음집이었습니다. 1230년경 오스트리아 제카우의 대수도원장에 의해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모음집은 성가뿐만 아니라 무대극과 도덕적인 노래, 풍자적인 노래, 사랑과 술에 대한 노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00년대 바이에른의 베네딕트보이에른 지방에 있는 베네딕투스 수도원에서 발견된 이후, 1847년에 요한 안드레아스 슈멜러(1785~1852)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보이에른의 노래'라는 의미로 '카르미나 부라나'라는 이름을 붙였죠. 오르프는 이 모음집에서 운명의 굴레, 사랑과 죽음, 행복과 비극이 교차하는 인간의 삶을 다룬 24곡의 가사를 골라 1936년에 <카르미나 부라나>를 작곡하였으며 이듬해에 초연했습니다. 오르프는 이 작품을 자신의 '최초의 진정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며, 출판사에게 다른 모든 작품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죠. '오, 운명의 여신여'는 이 작품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유명한 합창곡입니다.

그런데 <카르미나 부라나>뿐만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위대한 음악가로 칭송하는 데에는 음악 교육 분야의 뛰어난 업적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구닐트 케트만과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음악 '오르프 학교 음악'(Orff Schulwerk, 1930~35, 1950~54)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음악 교육을 위해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작품은, 노래와 타악기, 리코더 등을 이용하여 즉흥 연주를 하거나 다양한 리듬을 구현하는 등의 실천적인 접근을 통하여 음악적 사고를 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춤의 노래>는 총 네 권으로 이루어진 '오르프 학교 음악' 중 3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벤저민 브리튼 Benjamin Britten (1913~1976)

캐럴의 의식 A Ceremony of Carols (1942)

벤저민 브리튼은 헨리 퍼셀(Henry Purcell, 1659~1695) 이후 가장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영국 작곡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반 베르크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으나, 스승의 반대로 유럽 대륙으로 유학하지 못하고, 퍼셀이나 다울랜드와 같은 영국의 옛 작곡가의 작품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현대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옛 감수성이 담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브리튼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작곡했지만, 인성에 대한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오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비하면 순수한 합창을 위한 작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브리튼이 생각한 인성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열한 곡으로 이루어진 <캐럴의 의식>은 1942년 작품으로,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작곡되었습니다. 브리튼의 가장 자주 연주되는 합창곡으로, 원래는 고음으로 이루어진 합창과 하프를 위하여 작곡되었으나, 혼성 합창단을 위하여 편곡된 곡도 자주 연주됩니다. 가사는 제럴드 볼렛(Gerald Bullett, 1893~1958)의 '짧은 시로 이루어진 영국의 은하수'라는 시집에서 가져왔으며, 특이하게도 중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특별한 연관성 없는 곡들의 모음이었으나, 후에 안티폰과 같이 'Procession'과 'Recession'을 각각 처음과 끝에 추가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은 장중해 보이지만, 음악은 대중적인 캐럴과 같이 즐겁고 경쾌해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보입니다. 다른 작품에서 보여준 현대적인 언어를 많이 건어내고 주로 고전적인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이나 <노아의 홍수>(Noye's Fludde) 등과 같이 대중적인 목적을 가진 브리튼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



그림 8. 벤저민 브리튼 / 출처 : digital.vpr.net